

# 미 무인기·러 전투기 흑해상공 충돌 ‘긴장’

근접비행 후 미 드론 수면 추락  
“요격 시도” vs “급기동 탕”  
‘네타 공방’ 속 일단 신중 모드

14일(현지시간) 미국 무인기(드론)와 러시아 전투기가 흑해 상공에서 충돌해 미국 무인기가 추락하는 냉전 이후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우크라이나를 두고 사실상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양국의 대립각이 이번 일로 더 증폭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양측은 사건 직후 미국측 무인기의 추락 원인을 두고 엇갈리는 주장을 내놓으며 맞붙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과 러시아측 모두 더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다.



◇ 추락 원인 놓고 서로 비난

미국은 국제공역 비행에 대한 러시아의 요격 시도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반면, 러시아는 자국이 지정한 출입금지 구역이 침범된 데 따른 대응으로 전투기를 출동시켰으나 실제 충돌은 없었다고 맞받아쳤다.

네트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안전하지 않고 전문적이지 않은 ‘요격’”이라고 표현하며 책임을 러시아에 돌렸다.

미국은 필요할 경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까지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러시아 전투기가 미국 드론을 요격하려 시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이 일치된 언급을 내놓고 있지만, 러시아는 당시 세부 상황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미군 드론이 국경 근처를 비행하다가 러시아가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침범했고, 이에 드론 요격을 위해 러시아 군 전투기를 동원했다는 입장이다.

또 전투기들이 실제 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드론과 충돌하지도 않았으며 “미국 무인기

가 ‘날카로운 기동’ (급한 방향전환 등)을 한 탓에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졌고, 얼마 후 수면에 충돌했다”고 주장했다.

◇ 책임 공방 속 갈등 확산 자체 움직임도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직접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지속적인 군사지원 의사를 밝힌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으로 미국과 러시아 두 강대국간 대치가 직접적인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CNN은 전망했다.

가디언은 “양측은 ‘최후의 수단’ 핵탄두를 수전개씩 보유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행동은 위험을 상당히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측은 충돌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책임 소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도 행여 갈등이 확산할까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미 국무부는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우려를 전달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관은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우리가 흑해 상공에서 비행하거나 작전하는 것을 막거나 단념시키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라면, 이는 실패할 것”이라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견제에 굴하지 않고 역내에서의 군사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 서방 언론 “러, 강압적 신호 원인”

이와 관련, 영국 일간 가디언은 러시아군이 종종 사용하는 ‘강압적 신호’ (coercive signal)가 원인이 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압적 신호란 상대방에 영향을 주되 실제 무력 사용까지는 못미치도록 고안된 군사적 행동을 가리킨다.

미 싱크탱크 랜드코퍼레이션은 2021년 수십 건의 근접 사례를 살펴본 결과 러시아군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대해 이런 강압적 신호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여러 방법을 써버린 후에는 이런 신호가 더 위험하고 전문적이지 않은 것이 되버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방부는 추락한 드론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어디에 떨어졌는지, 잔해 수거 작업이 진행 중인지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CNN은 “민감한 감시 기술이 러시아의 손에 넘어간다면 미국으로서도 탐감치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야로슬라프 나드 슬로바키아 국방장관은 지난 9일 폴란드 국방장관이 전날 유럽연합(EU) 회의에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미그-29기를 넘기는 공동절차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슬로바키아도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보낼지 결정할 때가 왔다고 설명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면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 “한일 정상간 솔직한 대화 양국관계 발전 계기 기대”

일본 정부 대변인 기자회견

일본 정부는 16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15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현실점에서 예단해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한일 정상 간에 솔직한 대화가 이뤄져 국교정상화 이후의 우호·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 한일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쓰노 장관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한일 간에는 정상을 포함해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이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안보 환경을 고려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서도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를 소개할 계획이다.



미 캘리포니아 폭풍우 강타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링게임 엘카미노 도로 가로수가 폭풍우에 쓰러지면서 주차된 자동차를 짓누르고 있다. '대기의 강' (atmospheric river)이 일으키는 폭풍우가 24시간 동안 캘리포니아주를 강타해 최소 27만5,000명이 단전피해를 겪었다. 대기의 강은 다량의 수증기가 강처럼 좁고 긴 띠 모양으로 움직이며 많은 비를 뿌리는 현상이다.

### ‘지중해식 식단’ 여성, 심장병 위험 24% 뚝

호주 연구팀, 12.5년 추적 결과

“사망 위험도 23% 줄어 들어”

해산물과 견과류, 통곡류, 채소 등이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24% 낮았으며, 이 기간에 어떤 원인으로든 사망할 확률도 2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심장재단의 빅토리아 테일러 수석 영양사는 이 연구에 대해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것이 심장에 좋다는 것은 오랫동안 알려져 왔지만 남성과 별도로 여성만 따로 볼 때도 그 이점이 그대로라는 이 연구 결과는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지방 유제품과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지방과 함께 과일, 야채, 콩, 통곡류, 생선, 견과류 등을 충분히 먹고 가공육과 소금, 단 간식 등을 적게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호주 시드니대 연구팀은 이날 의학 학술지 ‘심장’ (Heart)에서 여성 72만여 명의 심혈관 건강을 평균 12.5년간 추적한 16개 연구의 데이터를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지중해식 식단을 엄격하게 따르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추적 기간 심혈관 질환에 걸리는 위험이 24% 낮았으며, 이 기간에 어떤 원인으로든 사망할 확률도 2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것이 심장에 좋다는 것은 오랫동안 알려져 왔지만 남성과 별도로 여성만 따로 볼 때도 그 이점이 그대로라는 이 연구 결과는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지방 유제품과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지방과 함께 과일, 야채, 콩, 통곡류, 생선, 견과류 등을 충분히 먹고 가공육과 소금, 단 간식 등을 적게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매일 | 장애인 학대 신고 캠페인 |

장애인학대 지금 신고하세요!

신고전화 1644-8295

장애인을 때릴 때

장애인이 싫어하는데 억지로 몸을 만질 때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장애인에게 욕을 하거나 무서운 말을 하며 괴롭힐 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보호하지 않고 버렸을 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식사를 안 주거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돈을 빼앗거나,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을 때

장애인학대란?

장애인학대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조사를 합니다.

3 피해자를 도와줍니다.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4 잘 지내는지 확인합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장애인에 대해 신고할 일을 겪었을 때 장애인학대를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장애인학대신고전화 1644-8295로 전화합니다.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하나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design by 소나무